

57년만에 '국군 아버지' 유해 찾은 순천 김의남씨 가족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고 김철웅 하사의 가족들은 57년만에 고인의 유해를 찾았다는 통보와 함께 1일 서울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에 초대받았다. 아들 김의남(64)씨 부부와 아내 박춘자(81)씨가 국방부의 초대장을 놓고 환하게 웃고 있다.

“전쟁터 떠돌던 부친 영혼 이제는 편히 잠드시겠죠”

“현충원에 안장된 줄 알고 수십년 참배했는데...”

“57년동안 전쟁터를 떠돌던 아버님의 영혼도 이제 편히 잠드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고 김철웅(당시 24세·보성 출신) 하사의 외 아들 김의남(64·순천시 석현동)씨는 지난달 24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의 전적지인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유해와 함께 아버지의 인 식표가 발굴됐다는 통보였다. “처음에는 전화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해 왔는데 유골이 또 발견됐다니 믿기가 힘들었죠.” 김씨 옆에서 이야기를 들던 어머니 박춘자(81)씨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순천에 사는 김씨 가족을 만난 것은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달 30일. 김씨 가족들은 현충원 묘지에 고인의 유해가 없었다는 황당한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동안 김씨 가족들이 참배해온 현충원 묘지에는 고인의 유골만 안장돼 있었다. 김씨는 황당한 속에서도 DNA(유전자감식) 검사 결과에 기대를 걸었고 최근 부자관계가 증명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 김철웅 하사의 유해는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3일 국립 대전현충원에 정식으로 안장될 예정이다. 고 김 하사가 징집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가을. 먹고 살기 힘들어 고향인 보성을 떠나 강원도 철원 탄광에서 일하다 전쟁을 피해 경남 김해까지 피란을 내려왔을 때였다. 젖을 먹지 못한 둘째 아기가 피란생활 중에 죽는 바람에 부인 박씨는 징집되는 남편을 보며며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 사격훈련장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아내에게 건넨 김 하사의 마지막 말이였다. 김 하사 가족들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35년을 살았다. 아내 박씨는 지난 1986년에 야 ‘보성군’을 ‘곡성군’으로 옮기던 행정작으로 전사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 하사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는 수십년이 걸렸지만, 국립대전 현충원에 마련된 묘비를 찾는 것은 채 5분이 안걸렸다. 박씨 모자(母子)는 묘비 앞에서 부둥켜 안은 채 몇 시간을 울 수밖에 없었다. 김 하사의 유해가 발굴된 강원도 양구 백석산은 1951년 9월 26일 백석산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남북이 격전을 벌였던 장소로, 김 하사 외에 고 김뢰중 상사의 유해도 발굴됐다. 아들 김씨는 “5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쟁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며 “아버지의 유해를 모신 다음에는 가족들의 아픔을 씻겨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얼어 맞아 죽는 줄 알았다”

단속중 중국 어선에 억류...쇠파이프로 폭행

폭력에 공권력 무너져 해경은 사건 축소 급급

목포해양경찰서 박경조(48) 경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한국의 영해를 지키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공권력이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 선원들의 폭력에 무참히 짓밟힌 사실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양경찰관들이 검문중이던 중국 어선의 선원들에 의해 억류돼 집단폭행 당한 것도 모자라 억류하고 있던 중국인 선장까지 내어주는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중국 어선들의 폭력성은 이미 위험성까지 넘어선 곳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해경을 상대로 우리나라 공권력까지 우습게 보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중국 어선 단속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대책 마련 없이는 또 다른 고(故) 박경조 경위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경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사건 경위=지난달 23일 오후 3시 30분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3003함’은 인근에서 조업 중인 100여 척의 중국어선 가운데 무허가 등 불법 선박이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경찰관 10여명을 태운 리브보트(고속단정) 2척을 바다에 내렸다. 리브보트는 한 중국 어선에 접근했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 등에 맞아 중상을 입은 김경수 순경.

으며, 김경수 순경, 김병선 순경, 이영철 경사와 중국어 통역 담당 등 모두 4명이 중국 어선에 올라탔다.

해경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국 어선의 선장을 ‘인질’로 리브보트에 태워 모함인 3003함으로 옮겼다.

그러나 중국 어선에 대한 검문이 시작되는 순간, 이 어선은 곧바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달아나던 중국 어선은 근처 중국 어선들에게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연락을 받은 어획물 운반선 등 중국 선박 50여척이 몰려왔다.

중국 어획물 운반선 선원 20여명은 우리 경찰관들이 검문을 위해 탄 중국 어선을 순식간에 장악한 후 쇠파

이프와 몽둥이를 휘둘렀다. 부상 경찰관들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 맞아 죽는 줄 알았다”고 몸서리쳤다.

김경수 순경은 턱관절이 부서져 말을 하기 어려운 정도로 고동이 심한 상태이며, 김병선 순경은 뇌진탕과 손목 골절을 입었다. 경찰관들은 우리측이 3003함 안에 ‘인질’로 데리고 있던 중국 선장을 풀어 주기로 하는 ‘포로 맞교환(?)’ 협상이 타결된 후에야 겨우 풀려났다.

해경이 중국 선장을 풀어주자 중국 선박은 유유히 사라졌고 부상한 우리 경찰관들은 목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해경 은폐에만 급급=이와 관련, 해경이 ‘굴욕적인’ 이 사건을 만회하려고 지난 25일 강도 높은 작전을 펴다 결과적으로 박경조 경위의 죽음을 불렀는지 모른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해경은 이 사건에 대해 말문을 닫고 병원에 입원 중인 경찰관에게도 입단속을 시키는 등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박경조 경사 빈소에서 해경 간부들이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반쪽을 사기도 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만인 지난 달 25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검색하려고 배에 오르려던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이성희기자 ish@kwangju.co.kr

중국 어선 단속 경찰 6년간 27명 사상

지난 6년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경찰관 1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지난달 30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벌어진 폭력 사고는 총 16차례로, 1명의 경찰관이 숨지고 26명이 부상했다.

사망자는 지난달 25일 신안 해상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에 의해 살해된 목포해경 소속

고 박경조 경위다. 또 2006년 6월에는 중국 선원이 단속 중인 경관 1명을 흉기로 왼쪽 가슴과 목 부분을 찔러 중상을 입혔고, 지난해 8월에도 경찰관 1명이 중국 선원 4명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다치는 등 폭행 정도가 점차 심각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 말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2천 50척, 영해침범 142척 등 2천192척이었으며, 이로 인해 888명이 구속됐다.

또 우리 어선이 중국 EEZ에서 조업하다 적발되면 선박의 톤수와 상관

없이 6천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찾아가야 하지만 50t 미만 중국 어선이 우리 EEZ에서 적발되면 3천만원의 담보금만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필성기자 kps@연합뉴스

정정 보도합니다

본지는 지난 8월 18일자 7면 “나무 도난” 알고보니 가족이 처분” 제목의 생나팔 기사와 관련, 현재 수사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중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김모(여·43)씨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가족의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하루빨리 법인이 잡혀서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7615)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text about real estate and contact information.

“최진실 사채설” 증권사 여직원 입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영화배우 최진실(40)씨가 텔런트 고(故) 안재환씨의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풍문을 퍼뜨린 증권사 직원 A(여·25)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최씨가 차명으로 사채업을 하며 자금난에 시달리던 안씨에게 25여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진술을 확보.

○경찰은 그러나 A씨가 “글을 올렸지만 내가 최초로 풍문을 지어내 유포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따라 A씨에 앞서 같은 내용의 소문을 유포한 이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Jooyi Travel' (조이 여행사)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